가정폭력 위험수위 넘었다

광주 60% 급증… 대부분 가정보호처분 중 발생

결혼 6년차인 주부 A(35)씨. 결혼 이후 술만 취하면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일삼던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의 강도가 심해지자 지난 2005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된 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편의 가정폭력이 잦아드는가 했지만, 최근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다시 법원을 찾았다.

가정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7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범죄는 187건으로, 2005년 111건에 비해 59.35%가 증가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가정보호처분 중 발생한 것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로, 지난해 가정폭력범죄 187건 중 76%인 143건이 배우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원인은 우발적인 분노가 128건(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술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20건(10.6%) ▲학대 15건(8.2%) ▲경제적 빈곤 8건(4.2%) 순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폭력은 지난해 6건으로 전년 8건에 비해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절반이 넘는 96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2명(22%) ▲50대 36명(19.2%) 등이었다. 20대와 60대도 각각 9명과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판사가 직권으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자는 징역·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기록 외에 따로 처벌 기록도 남지 않는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죄질에 따라 ▲접근 금지 ▲친권 행위 제한 ▲의료 및 상담시설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처분제도가 지속적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를 제재하기에는 경미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5년 여성단체들이 국회에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는 긴급조치를 포함한 경찰의 개입 강화, 사건 처리기간 단축,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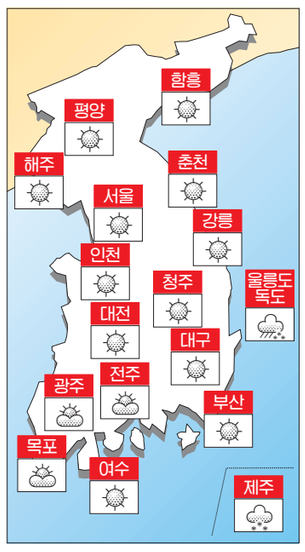
광주의 한 종합병원의 척추 수술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05년 병·의원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입원시 42.5%로 전년대비 2.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빙판길 조심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에서 오전 한때 눈이 오겠다.

1월 8일 (음 11월 20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2~4℃
목포	구름 많음	-2~4℃
여수	구름 조금	-1~5℃
완도	구름 조금	-1~4℃
구례	구름 많음	-4~4℃
해남	구름 조금	-4~3℃
장흥	구름 조금	-4~3℃
고흥	구름 조금	-4~5℃
순천	구름 많음	-4~4℃
영광	구름 많고 눈	-3~4℃
진도	구름 많음	-3~4℃
전주	구름 많음	-3~3℃
남원	구름 많음	-7~3℃
정읍	구름 많음	-4~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05:04 17:37 썰물 10:19 22:56
여수 밀물 12:03 --:-- 썰물 05:33 18:12

▲해뜸 07:41 ▲해짐 17:36 ▲달뜸 22:13 ▲달짐 10: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날 씨						
최저/최고	-4/6	-3/4	-3/2	-4/4	-3/6	-2/7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2009년 7월부터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되면 그전부터 기간제(계약직)로 근무해온 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노동부 관계자는 7일 "비정규직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의 전제조건인 근로계약기간 기산일은 7월1일인 만큼 이전 근로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는 2009년 7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사용주가 근로계약기간이 2006년 7월1일~2007년 6월30일인 근로자를 2007년 7월1일자로 다시 채용해 2009년 6월30일까지 사용했다면 이 근로자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2008년 6월1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환자 본인 부담률 전년보다 낮아져

입원 42.5%, 외래 41.6%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입원은 42.5%, 외래는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1만원 나왔을 경우 입원 때는 환자가 4만2천500원을, 외래는 4만1천6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환자 부담률이 입원은 2.6% 포인트, 외래는 1.5% 포인트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4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 대학병원 보장률 쑥 올라=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의 200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9%로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6% 포인트, 3.8% 포인트 증가한 55.3%, 55.3%의 보장률을 보였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보장률은 57.5%로 전년에 비해 2.6% 포인트 올라갔고, 외래는 전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진 58.4%를 기록했다.

◇ 환자 부담의 주역 비급여 항목=비급여 항목 가운데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큰 짐을 안기는 것은 무엇일까. 입원 환자의 경우 병실차액료와 식대, 선택진료비 등으로 분석됐다.

병실차액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1~3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지출의 23.5%를 차지했다.

이어 식대(19.8%)와 선택진료비(17.6%)가 주요 항목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는 치료재료대(13.9%), 초음파(5.2%), 주사료(4.9%), 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1%), MRI(2.4%)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이어도 인근 암초 '파랑초' 명명

해양수산부가 7일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수심 24.6~27.2m의 수중 암초를 '파랑초'〈도면〉라고 명명했다.

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이 먼저 이름을 붙였지만 명백히 한국의 땅인 마라도와 이어도에서 훨씬 더 가까운 우리나라 해역에 있다.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 수중 암초의 길이는 372m, 폭은 169m, 면적은 5만2천800㎡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1999년, 2001년, 2002년에 걸쳐 멀티빔 측량 등을 통해 이 암초를 조사한 뒤 임시로 '딩얜(丁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 측이 이 암초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조사선을 보내 암초를 측정했다.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가 149km인 반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된다. /연합뉴스

특목고 편법운영 무더기 적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외고 및 과학계열 특목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 편법,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외고 6곳, 경기도 지역 외고 9곳을 비롯한 외국어고 29개교와 과학고 17개교(과학영재학교 제외), 국제고 2개교 등 모두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외고 가운데 6곳에서 유학을 위한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시 임의대로 성적표기 방식을 바꾸거나 등급 및 등급별 점수기준을 변형하는 등 '내신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점 이상이어야 '수'를 주게 돼 있는데도 80점 또는 70점 이상이면 모두 '수'로 평가하고 영문성적표에는 '수' 대신 'A' 로 표기하는 등 등급별 점수기준을 멋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2곳의 외고에서는 미국 대학진학시험인 SAT 등을 치르기 위해 결석한 학생을 출석 또는 공결 처리하거나 중간고사 등 학교시험을 면제해 준 경우도 있었다.

입시관리에서는 대부분의 외고에서 외국어 전문 교육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적성·창의력 검사 때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거나 구술·면접 고사에서 변형된 지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학교는 중학교 교과수준 이상의 문제를 출제했으며 구술·면접 고사 장소에서 수험생 간 격리 거리가 불충분하거나 듣기평가 문항 출제를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등 입시 보안이 미흡한 학교도 더러 있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일 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 / 1년 화원제
오전 야간여러분+오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2개월 이론종합반
오전 야간여러분+기초영어 수강
◎문제풀이반(매월 1일개강)
오후문제풀이+기초영어 수강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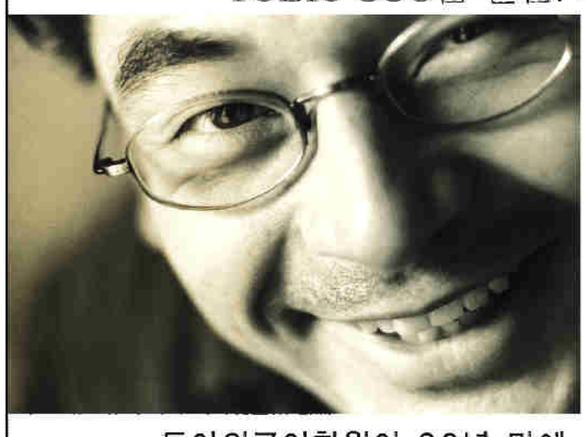
경찰학개론	형 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 사	영 어	영 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8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1차개강: 12월 18일, 2차개강 : 1월 2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4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초
개설과목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現서울YBM시사영어학원 조성훈 교수 전격 초빙!
여러분을 TOEIC 실력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TOEIC 990점 만점!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이 30년 만에 신관으로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